



가나안 이야기

「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

▮ 다비드 · 하다스 · 담희 · 단아 · 도하 · 다운

샬롬! 2월의 마지막 날 프라하에서 문안드립니다. 지난 한달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희들 이스라엘을 떠나 이곳에서 지내지도 이제 5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저희들은 여행자 비자로 이곳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은 주변 나라로 비자여행을 다녀야야 합니다. 조만간(3월 4-5일) 두 번째 비자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여행은 인접국가 폴란드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간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는 계획입니다. 주어진 시간 틈틈이 유대인들과 관련된 공부와 더불어 현장 방문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대인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지려 합니다. 이러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이 시간을 통해 보다 더 잘 준비 되어야할 부담과 책임감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방문을 통해 유대인들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이 시간을 빌어 이해하고 또한 그들의 감정에 한걸음 더 다가 보다 깊은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과 특히 먼 길을 차를 타고 오가야 하는데 여행 중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가족 살아가는 이야기

요즘 유럽은 곳곳에 한파가 찾아와 연일 영하의 날씨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프라하도 낮에 영하 10도를 전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입춘(立春)이 지나 이제 봄이 오겠지 생각하다가도 요즘 날씨를 보면 아직 봄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러한 날씨에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 활동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매일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 틈틈이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비드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는데 그러다보니 예전과 다르게 아이들과 자주 충돌하기도 하고 또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이들의 전인교육을 부모인 저와 아내가 온전히 담당하게 되고 가정 내에서 모든 교육과 생활지도를 책임져야 합니다. 성경적 홈에듀케이션(Home Education)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미숙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맡겨주신 자녀들을 청지기로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와 아내에게 지혜와 열심 무엇보다 인내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많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 복음 제시와 저항 사이에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사용하던 전도 책자와 스티커를 활용하여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프라하 내 유대인 지구를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 벽에 붙어 있는 다양한 스티커들 가운데 유독 제 눈을 사로잡은 히브리어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전하려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아래 히브리어로 '명예훼손, 나에게 그따위 소리(말) 하지 마' 라는 저항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리는 전도용 스티커를 가지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볼 수 있을 만한 적당한 곳을 찾던 중에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과거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곳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 중 하나는 어떤 사회에서든 유대인 공동체의 결속력은 단단하고 또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한 외부환경에 놓이다보니 그렇게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공동체성 안에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지켜내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비단 프라하에서만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선교 대상에 있어 가장 어렵고 또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민족을 뺄 때 유대인은 늘 그 정점에서 거론되곤 합니다. 이러한 그들을 복음으로 섬겨야 하는 저나 다른 사역자들이 지녀야할 자세와 마음가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전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그 마음가짐을 놓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헝가리 부다페스트 방문 이야기

기도해주신 덕분에 헝가리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짧은 방문 일정이라 많은 곳을 둘러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한 곳 있었습니다. 다른 아님 유대인 대학살의 현장 중 하나인 '다뉴브(도나우)강'입니다. 특별히 그곳에 유대인 대량학살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다뉴브(도나우)강가의 신발들' 이 놓인 자리를 찾았는데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고 또 강가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당시 부다페스트에는 85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8만 여명만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헝가리에 살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하여 그곳의 사역 환경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장시간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과 사역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한 민족(유대인)을 섬김에 있어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밖이든 같은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힘써 수고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와 서로에 대한 격려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계속 교제하며 서로 동역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덜덜 떨며 도시락 먹기



야외 학습 시간



훈육의 시간



복음과 저항



다뉴브 강가의 신발들



그곳에서 만난 유대인



헝가리 사역자 가정



「 기도제목 」

Jewish Cluster Ministry Team

1. 프라하를 찾는 유대인 방문자들과의 접촉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과의 만남과 동역을 위해
2. 디아스포라 유대인 섬김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에 함께할 동역자들을 허락하시도록
3. I*B와의 협력을 위한 사역과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종교비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4. 베두원 사역(타마르 프로젝트)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현장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소서
5. 요압 아저씨와 마이안 그리고 이브라힘 가정이 예수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6. 3월 초(4-7일)에 있을 비자여행 간 안전과 무사 귀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연락처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 단아, 도하, 다운)
- KEB 하나은행 :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코리엘 프로젝트
- KEB 하나은행 :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 주 소 :
Rev. JAESUK JUNG
K Prelátům 60, Předí Kopanina – Praha 6 [734373],
Czech Republic

- ※ 체코 연락처 : +420 774 567 658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